

##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 Cultural Diversity Complex(PUFS Namsan-Dong Campus)

#### 프로젝트와의 만남

10월이 시작되던 토요일의 현장설명회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봉사, 평화, 화합,  
배려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  
성 기관을 목표로 설립된 부산외국어대학교  
는 지난 25년여의 우암동 시대를 발판으로  
새로운 미래형 캠퍼스인 '세계 문화 콤플렉

스(Cultural Diversity Complex)'라는 비전  
을 제시하는 남산동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  
음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마  
스터플랜' 현상설계를 공모했다.

외국어대학이라는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  
역사회의 기대와 대학의 장기 발전 청사진에  
입각한 다기능 역할의 캠퍼스 개발을 통하여  
문화 캠퍼스로서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세

계화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문화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대  
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현상설계  
공모의 기본 목표로 제시되었다.

10월이 시작되던 토요일 아침 일찍 현상  
설계팀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 했던 날씨가 마  
침 게이면서 낮게 내려 앉은 하늘이 서서히



design note

견허질 즈음 부산에 도착 했다.

현장 설명회가 열리는 외국어대학교 우암동 캠퍼스 본관에 도착했을 때 여느 현장 설명회와 다른 현장 설명회 모습에 참으로 흐뭇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입구에서부터 현장 설명회가 열리는 본부 4층 회의실까지 단정한 정장의 안내 도우미들이 밝은 미소로 안내를 해 주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우선 건축사들을 정중히 대접해야 된다고 하며 학교에서 준비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다.

학교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우유, 바나나 등의 다과로 시작된 현장설명회는 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담당 기술고문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어대학교의 새로운 '남산동 캠퍼스 시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기대를 느낄 수 있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작가로서 새로운 의욕이 더불어 솟아나는 듯 했다.

### 금정산 자연이 흘러내리는 계획부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시대를 열어 갈 계획부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금정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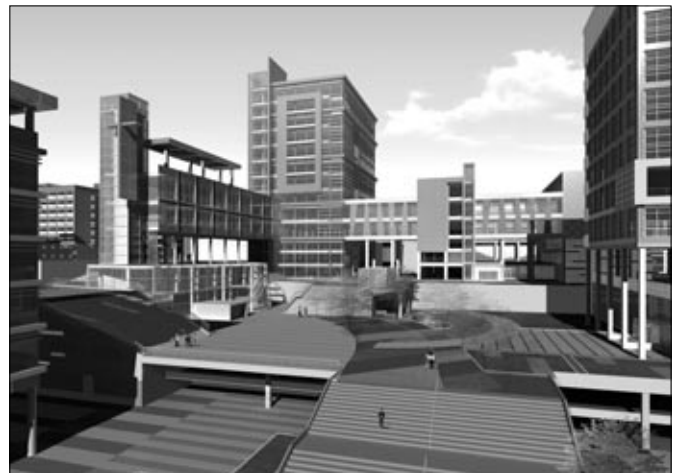
네 개의 계단형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계획부지는 현재 각 단별로 체육구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었다.

각 구장 간 레벨차이가 15m이상의 법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 법면을 과도한 이동없이 계획적으로 활용한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지침으로 요구되었다.

전체적으로 계획부지는 주변 금정산 녹지가 주된 조망과 환경조건을 구성하고 있으며 부지 동측으로 펼쳐진 남산동 도심이 Grand View를 이루며 부지를 도시와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부지를 돌아보고 현상설계팀과의 소감을 나누는 결과 부지 현황에 대한 몇 가지 건축적 고려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첫째 계단형 부지와 기존 법면에 대한 건축 계획적 활용방안, 둘째 인근 도심에 대한 주 녹지 공간으로서의 금정산 자연녹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녹색 캠퍼스 계획, 셋째 미래지향적 캠퍼스인 세계문화 콤플렉스(Cultural Diversity Complex)로서의 상징성 계획을 위한 건축적 고려이다. 며칠동안 내린 비로 질퍽거리는 계획부지를 돌아보며 구두에 묻어오는 흙으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런 축복받은 자연 속에 생기게 될 외국어대학교 캠퍼스의 모습은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작품의 계획과정**

**세계문화 콤플렉스(Cultural Diversity Complex)**

마스터플랜 계획에 앞서 지침서 상의 몇 가지 전제를 고려하여야 했다. 우선 계획부지의 물리적 조건으로 제시된 지침은 각 구장(면)별로 현재 조성된 부지의 활용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즉, 제1, 2구장은 교육기본 및 지원시설, 제3구장은 체육시설인 스포츠 Complex, 제4구장은 운동 및 야외시설로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남산동 캠퍼스의 개방방침으로 몇 가지 고려 조건이 제시되었다. 세계수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과 확장성,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 콤팩트한 기능을 고려한 캠퍼스의 일체성과 연계성, 다양한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성,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캠퍼스.

이러한 지침상의 전제들을 고려하여 매스 배치 계획이 진행되었다. Rough한 Massing작업

으로 캠퍼스와 주변과의 관계성, 캠퍼스 각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보기 위한 배치대안이 고려되었다.

배치 대안 작업을 통해 몇 가지 마스터플랜 계획상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었다.

첫째,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위한 부지 조성 계획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각 구장별로 기존의 높이 차이를 완화하며 전체 캠퍼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각 구장 사이에 몇 개의 중간레벨을 조성하여 각 시설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진입 레벨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성 계획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긴 부지의 레벨 차이는 지하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전체 캠퍼스의 지상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콤팩트한 캠퍼스 계획을 위하여 각 관련 시설을 복합화하여 전체 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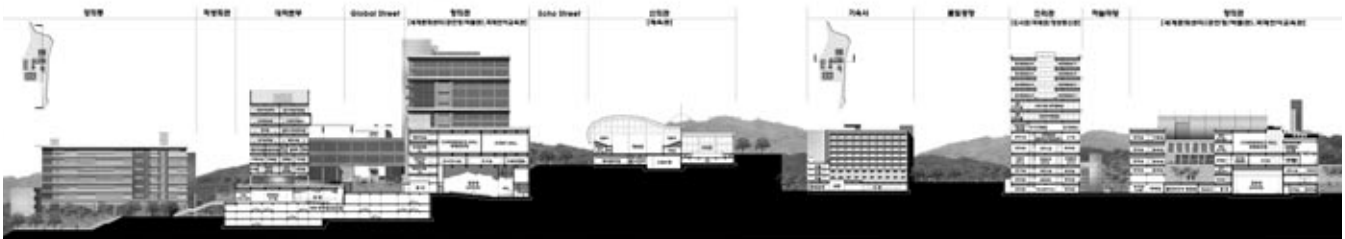
셋째, 주변 지역 및 도심에 대한 상징적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캠퍼스 상징적 건물에 대한 고

층화를 고려하였다. 이는 계획부지 북측 주 접근 도로의 진행에 따른 다양한 각도의 인지성과 상징성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전체 캠퍼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조형적 고려가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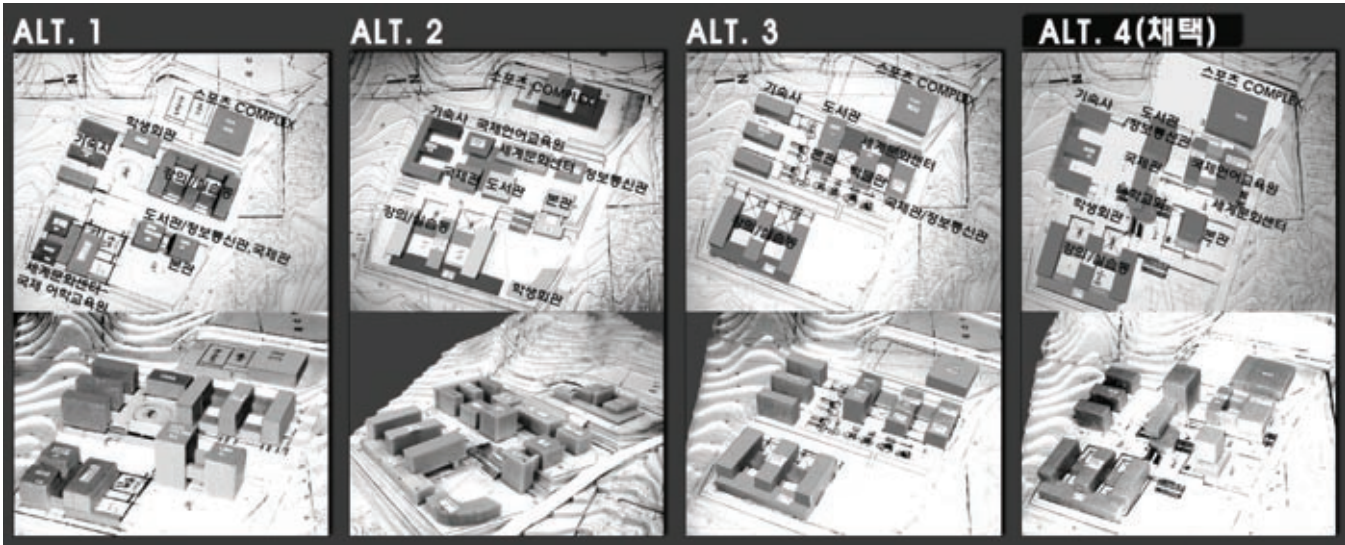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금정산 녹지가 전체 캠퍼스로 흘러내리는 녹색 캠퍼스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했다. 후면 금정산 녹지가 레벨별로 구심점 기능을 갖는 광장을 어우르며 진입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Green Network로 계획하여 다시 도심 녹지로 연계시키도록 계획한다.

마스터플랜 배치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1차 공사분인 강의동과 세계문화센터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다.

1단계 공사인 강의동을 1구장에 별도로 배치하여 1단계 공사에 대한 범위를 1구장에서 완료하여 단계별 캠퍼스 조성 계획을 자연스럽게 전개시켜야 하며, 세계문화센터는 2구장 접근도로



단면도



변에 배치하여 캠퍼스 개방시설로서 계획하여야 한다는 안과 세계문화센터 등의 캠퍼스 문화시설을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제1구장에 Zoning하여 문화 콤플렉스를 별도의 공간으로 독립시키고 강의동은 전체 캠퍼스로부터의 공용 이용성을 고려하여 제2구장에 연결시켜야한다는 안이 제기되었다.

결국 캠퍼스 단계별 조성계획과 가로변 캠퍼스 개방시설 연결 배치의 장점을 고려하여 강의동을 제1구장에 배치하는 배치 안이 결정되었다.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

캠퍼스 마스터플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그 프로젝트의 특성상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의 연결성과 합리적인 부지 이용계획에 중점을 두어 각 건물의 내부 프로그램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각 수용 프로그램의 충분한 이해가 없는 마스터플랜은 전체 캠퍼스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1단계 강의동에 대한 세부적인 공간 계획과 더불어 전체 캠퍼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진행되었다.

각 시설을 콤팩트하게 복합화 시키기 위한 각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계획이 진행되어 전체 캠퍼스의 상징적 공간인 대학본부와 미래 학문적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서관 건물을 고층화시키며 각 프로그램을 복합화 시켰다.

접근성과 개방감이 우선 되어져야 할 대학본부와 캠퍼스 문화공간인 세계문화센터, 스포츠 Complex, 대학박물관 등은 접근 도로 레벨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도로와 연결되며, 국제관, 정보통신관, 도서관은 중심적 연구·학습 공간으로 캠퍼스 중심부에서 연결 계획되었다. 기독교 이념에 바탕을 둔 대학으로서의 역사적 상

징성을 고려해 대학교회를 조형화하여 캠퍼스 중심에 계획하며, 대학 기숙사는 후면 금정산 녹지와 연결하여 별도 Zoning하였다.

#### 자연에서 생성된 캠퍼스

캠퍼스 레벨 계획, 시설의 복합화 계획, 상징적 캠퍼스 계획 등과 더불어 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마스터플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외부 공간 계획이었다.

‘남산동 캠퍼스 조성계획’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또한 아름다운 캠퍼스, 친환경적인 캠퍼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캠퍼스였다.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미래 건축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성, 친인간성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부지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 녹지축



의 하나인 금정산 자연 속에 위치한 경우에는 친환경성, 주변 녹지와와의 조화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할 건축 요소일 것이다.

캠퍼스 부지 조성을 위해 계단형 구장으로 조성된 자연을 원래의 녹지 체계로 회귀시키기 위한 녹색 캠퍼스 계획이 필요했다. 이 녹색 캠퍼스 위에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캠퍼스를 계획함으로써 비로소 자연 속에 조성된 캠퍼스가 아닌 자연에서 생성된 캠퍼스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캠퍼스가 될 것이다.

계획부지 전체를 둘러싸며 흘러내리는 금정산 줄기는 제 3, 4구장 남측에서 부지 내부로 끌어 들여지며 내부로 흘러든 녹지는 계획부지 북동측 주진입부까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연결된다. 캠퍼스 각 레벨별로 계획된 커뮤니티 광장(풀빛광장, 물빛광장, 월계수광장)은 캠퍼스를 흘러내리는 녹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중심적 외부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흘러내리는 녹지축을 따

라 캠퍼스 주 보행동선이 연결 계획되며, 진입도로 레벨의 변화에 따라 상징적인 보행축이 레벨별로 남북축으로 조성되어 캠퍼스 각 시설을 연결하는 접근로(Street)로 계획되었다.

### 새로운 대학 캠퍼스 제안

남산동 캠퍼스로의 이전으로 인한 제2의 도약을 계획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외국어대학교로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캠퍼스를 계획하며 미래 캠퍼스 개념으로 '세계 문화 콤플렉스(Cultural Diversity Complex)'를 제시하였다.

대학 캠퍼스는 더 이상 상징적인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이미지만을 고수할 수 없는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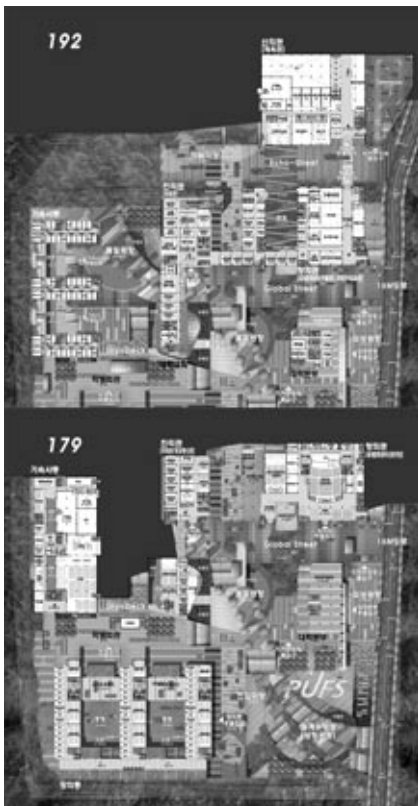
특히 특성화 대학교로서의 외국어대학교는 보다 다양성 있는 세계 문화 수용체로서의 문화 공간적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연구시설로서의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미래 세계화 시대에 대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대학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캠퍼스 마스터플랜 계획에 있어서도 단순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캠퍼스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Complex로서의 대학 캠퍼스를 위하여 새로운 대학 캠퍼스 건축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지상 공간에 대한 차량 진입을 배제하여 캠퍼스 전체를 캠퍼스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각각의 장소성이 강조된 공간으로 조성하며, 콤팩트하게 연결되고 복합화 된 시설들을 위하여 피로티, 아트리움, 중정, 공중가로, 연결 브릿지, 전망데크 등으로 전체 캠퍼스를 하나의 체계 속에 질서 있게 구성하여 공간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동선의 연속성과 아울러 시각의 연속성을 추구하였다.

초기 현장설명회에서 보여 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의 열정과 현장조사에서부터 이어 온 건축사의 고민이 세계 속에서 미래를 여는 부산 외국어 대학의 모습에 밀가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㉔



평면도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857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44,064.00㎡
건축면적	24,534.46㎡
연면적	120,402.06㎡
건폐율	17.03%
용적률	71.55%
주차대수	915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1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화강석 외장마감, 알루미늄 시트, 외장용목재패널 등
설계팀	김갑부, 성모경, 이윤희, 강진구, 이상명, 박중호, 권도윤, 박기현